

게시판

자선바자회 신김종환사회복지관은 10월 19~20일 지하철 1호선 신길역 광장에서 KBS사회봉사단과 함께 축하기 무의탁 독거어르신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마련 자선바자회를 연다. 생활용품, 의류,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연예인 소장품 경매도 이뤄진다. (02)831-2755



템플스테이 사진공모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10월 31일까지 템플스테이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사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진이나 운영사찰 전경사진 등을 원본 CD 또는 필름과 함께 템플스테이 사무국 앞으로 보내면 된다. 1등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기념패가 주어진다. (02)732-9925

청소년자원봉사한미당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10월 22일 제3차 청소년자원봉사한미당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효 실천, 손자손녀 되는 날'을 개최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 50명이 해령양로원 어르신과 함께 대화나누기, 점심식사 모시기 등 1:1 활동을 펼치게 된다. (02)735-8165

조부모·손자 제주도 여행 서울 자양사회복지관은 10월 21~23일 건강한 조손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손녀 20여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떠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458-1664

20면 상식 퍼즐 정답

강	아	지	폴		
천		피	뢰	침	
사	경	리	전		
	국		물	권	
	대				모
	전	대	미	문	술
			상	록	수

깊어가는 가을 축제로 물들다

가 불만한 가을 문화축제

전국은 지금 축제 중이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전시축제 및 단풍축제 등이 열리고 있다. 단풍과 꽃·문화재를 테마로 열리는 가을축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이다. 주말에 가볼 만한 축제를 소개한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물들고 있는 장성 백양사 단풍.



보은 속리산 단풍축제에서는 인간문화재 김대균씨의 외줄타기 공연이 펼쳐진다.

● 청원 추사 김정희 특별전

청원군에서는 가을을 맞아 10월 25일까지 청원군 문인회 대청호미술관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 간찰, 병풍, 탁본 150여 점을 전시한다.

추사의 제주도 유배시절 작품인 금석문(金石文), 경남 양산 통도사에 있는 노곡소축(老谷小築), 56세 때 초의 스님을 위해 전남 해남 대흥사에 써준 일로향실(一爐香室), 경북 영천 은해사 대웅전 현판 등 서예, 탁본 43점과 불교의 윤회설에 입각한 무량수(无量壽) 서각, 제주도 유배 때 제자인 이상직에게 그려준 국보 제180호 세한도(歲寒圖) 영인본 등을 볼 수 있다. (043)251-3114

● 보은 속리산 단풍축제

충북 보은군은 10월 21~23일까지 3일간 속리산 단풍축제를 연다. 속리산 단풍축제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매년 개최되던 가을한마당 축제, 충북알프스등반대회, 속리산 단풍가요제를 하나로 묶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2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충북알프스등반대회'는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세심정, 문장대를 거쳐 다시 잔디공원으로 내려오는 일정이며 15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 정오에는 속리산 최고봉 천황봉 높이와 같은 숫자인 1천 57명분의 산채비빔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속리산 산채비빔밥행사'도 열린다. 또한 인간문화재 김대균씨의 줄타기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043)540-3392-3

● 청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청주에서는 세계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10월 23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예비엔날레는 공예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공예의 진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여러가지 색의 구슬을 꿰어 목걸이와 팔찌로 만들 수 있는 비즈공예, 물이끼로 동물모양을 만들어 심는 식물공예전시 등 20여 개의 각종 체험장을 둘러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한국공예관 제1



추사 김정희가 타계하기 3일전에 쓴 서예 '보은사 현판'.



백양산 학비위를 배경으로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다.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직접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실에서는 '땅으로 빛은 하늘'이란 주제로 조선시대사발특별전이 열린다.

임진왜란 전후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한국인의 노력에 의해 되찾은 찻사발 52점이 전시되는데, 이 찻사발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명 이도다완으로도 불리는 이 찻사발은 전국에서 6명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국보로 여길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043)279-5205

●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마산은 전국 국화재배 면적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화도시로, 예로부터 마산국화는 연간 인개일수가 적은 온화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화훼인들에게 '화색이 선명하고 신선도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왔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마산 가고파국화축제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소인 들섬해상유원지에는 해안가에서부터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다룬대작, 절화국, 현애작, 석부작, 목부작, 탐미작, 북조작 등 각각양색의 국화 30여만 본이 화려하게 단장될 예정이다. 또 국화작품전시 및 소망 등 달기, 국화왕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5)240-2271

● 장성 백양단풍축제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장성군은 백양산의 기암괴석과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28~30일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천년기념물인 비자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 백양사와 함께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단풍송 거리공연,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목판탁본체험전, 단풍잎 모자이크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29일 오후 5시에는 백양사에서 '백양사 나눔음악회'가 열리며 7시부터는 군청광장에서 '백양단풍음악회'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061)390-7224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방송

팔만대장경에 담긴 고려불심

마산 MBC, 5부작 다큐 '문명을 새기다-대장경'



팔만대장경 목판본.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 성전(聖典) 고려대장경을 만난다."

마산 MBC는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고려인의 정신을 조명한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문명을 새기다-대장경'을 방영한다. 제1부 '갠지스로부터(10월 25일)'를 시작으로 '판리장성을 넘어(11월 1일)' '혁신의 역사, 고려대장경(11월 8일)' '칼끝에 새긴 숨결(11월 15일)' '대장경은 살아 있다(11월 22일)' 등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60분간 방송한다.

제1부 '갠지스로부터'는 기원전 1세기 스리랑카에서 종려나무 잎에 삼장총서를 기록했던 대장경 역사의 시작과 배경을 조명한다. 또 부처님이 열반한 뒤 5백 명의 제자들이 칠엽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후 문자로 기록하기 전까지의 구전(口傳) 삼장(경·율·론)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불교의 경전 계승 과정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몄다.

이번 5부작 다큐의 하이라이트는 제3부 '혁신의 역사, 고려대장경'과 제4부 '칼끝에 새긴 숨결'. 제3부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의 속장경은 물론 일본 남선사에 있는 초조대장경 인쇄본을 면밀히 분석해 당시 고려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밝힌다. 특히 제4부에서는 75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흠집이나 종이 슬지 않은 신비스런 보존과정을 조명하며, 장경판전과 판가의 숨은 과학 이야기 등을 세세히 파헤친다.

연출을 맡은 안관수 PD는 "팔만대장경은 한국불교의 상징을 대표하는 불교유산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장경판전에 갇혀 박제된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려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팔만대장경에 담긴 고려인의 불심과 지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전시

차와 선의 만남 '다선일미'

해남 대흥사, 이영수 서각전

이번 주말에는 해남을 찾아 대흥사에서 열리는 초의문화제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특히 초의문화제 초대전으로 열리는 서각전은 특별한 감흥을 선사한다.

10월 22일~11월 6일 대흥사에서 열리는 서각가 이영수씨의 '차와 선이 어우러진 서각 초대전'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영수씨의 4번째 개인전이기도 하다. 초의 선사의 선시, 다시(茶詩) 등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선시 등을 서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체색을 통한 표현 등 독창적인 감각이 돋보인다. 다양한 글씨체는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뽐낸다. 글씨와 어우러진 간결한 그림은 그 자체로 이미 선(禪)이다.

이영수씨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차와 선을 통해 순간순간 놓쳐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데 주력했다"며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061)534-5502



체색이 가미돼 현대적인 미를 느낄 수 있는 이영수씨의 서각작품.

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클릭!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 (02)2004-8218~9



2006년 달력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이 2006년 달력을 선보인다. 국6월, 사륙12월, 국12월 달력은 물론이고 탁상용 월력, 스프링이나 홀더로 제작된 미니 차걸이용 달력, 숫자판 카렌다, 메모 카렌다 등이 준비되었다.

류귀화 선생 탁종이 인형, 원성스님 동승그림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2006년 달력은 고급 스노우화이트지에 인쇄해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다. 가격: 5백원~3천원 (02)732-1520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츰츰히 짜인 여섯 빛깔 인연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감독: 민규동 출연: 엄정화, 황정민 장르: 멜로 상영시간: 129분 등급: 15세 이상

일곱 색깔 무지개만큼이나 아름답고 덩크 솟처럼 짜릿했던 일주일, 당신은 있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섯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친 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이 영화는 우연히 꽃미남 가수를 만나 마음을 빼앗긴 예비 수녀 윤진서의 아슬아슬한 '사랑 줄타기', 전직 농구선수 김수로와 그를 사랑하는 팬과의 사랑 이야기 등을 유니버설 형식으로 만들었다.

오직 사랑만 먹고사는 가난한 젊은 부부 임창정·서영희 커플, 너무나 사랑하기에 생애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밀려 결혼부터 한 용감한(?) 이 두 사람, 거리외판원으로 취직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남의 것에 눈독들이지 않는 바른생활 부부의 진솔한 신혼이야기.

다 망해가는 극장주 주현, 지금이라도 불후의 명작을 찍을 수 있다며 호연장담하며 허풍을 떨며 영화 같은 인생을 꿈꾸며 산다. 그 극장 앞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오미희, 그녀 또한 오드리 햅번처럼 영화 속 주인공일 수 있다고 꿈꾸는 50세 꽃미소녀다.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다. 아직 이런 일주일을 살아 본 경험이 없는 당신이라면 이 영화를 보며 사랑표 수영복을 입고 행복호수에 빠져 '헬프미(Help Me)'를 외쳐보는 감춰진 상상에 빠져 보는 어떨까.